헤이안쿄 견학투어

글·그림:마쓰이 교코

네가 우리 엄마라도 되냐…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닌데…
아휴 멍청아
도대체 학비를 누가 내는거냐?!
타닥
아얏
나오미 네가 진로결정을 못 하겠다니까 온 거잖아.
우리 사촌누난데 이 학교 학생이야.
난 오이케 미스즈. 잘 부탁해.
시부야 나오미라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아키라!
미스즈 누나!
타다닥

지금
교수님
안 계시니까
잠시만 기다려.
그럼 갈까?
실례
하겠
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음
한마디로
말하면
저기
미스즈누나.

모른
좋은 뜻으로
우리 교수님
이공계 들어 갔다
관두고
다시 들어올
정도였으니까.
자기 교수님인데
'바보' 라니…
헤이안 밖에
모르는
바보.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고 싶으셨데.
재입학하신
거예요?
아하.
둘이서
책이라도
보고 있어.
참
내가 음료수
좀 사 올게.

고양이?
…
(생각중)
앗
아키라!
?!
스륵
왜 그래?
바보야
무슨 소리
하는거야.
고양이가
책 속으로
들어갔어!
정말이야!
이 책 속으로
말야!

응?
덥석
휘익
쏘소속
빨려 들어가!
나오키!!

헤이안쿄 견학투어.

뭐야
이거?!
교토시매장문화재연구소 ,
「무라사키 시키부가 살았던 교토」,
유니플랜출판,2008
야!
왜 갑자기
이런 곳에…
아키…
야…
응?
떨고
있나?
!

헤이안쿄 견학투어.

*헤이안쿄 안에 있는 궁성의 남문.
**헤이안쿄의 남문. 주작대로를 따라 주작문으로 이어진다.

앗!
조금 전의
고양이!!
잘 못
들었나?
아래를
봐
아래.
아래?
!?
왜 그래?
아
고양이다.
고양이
아니란다.
고양이가
말을
했어!!
고양이가
아니라고
몇 번
말하냐?
너 왜
꼬박꼬박
대꾸하니?
으음.
그럼 뭐죠?
그렇구나.
뭐든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지.
아무리
봐도
고양이잖아.

뭐라구?
너희들이
굳이 부르고 싶다면
교수님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어.
여기는
헤이안쿄를
무대로 한
책 속이다.
전부 실제가 아닌,
말하자면
가상현실이지.
그래
모처럼 왔으니
여기를
안내해 주마.
교수님
여기는
대체 어디예요?
으흠.
털썩
음.
너는
너무
순응적이야!
어때서?
난리법썩
떨어봤자
어쩔 수 없잖아…
의심도
좀 해봐라!
흥
난 싫어!
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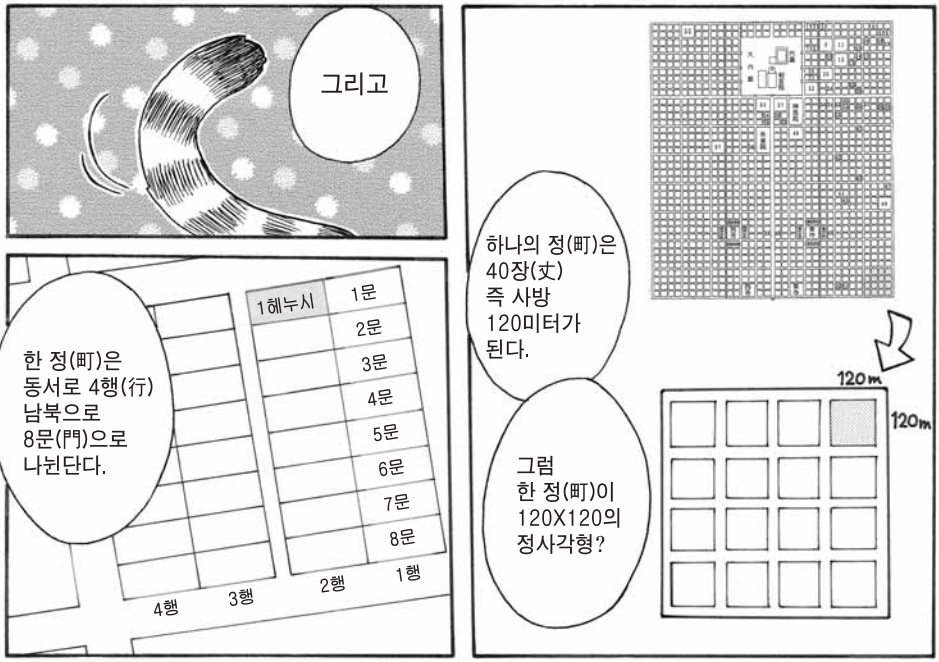
*당시 신분이 높은 여성들이 여러벌의 옷을 겹쳐 있었던 의상을 칭함.

헤이안쿄 견학투어.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지...
그건 그렇겠지만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귀족이라 불리웠던 사람은 극히 소수였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이란다.
그러고 보니까 헤이안시대의 서민문화는 수업중에 별로 안 나오네.
제 공부가 부족했어요.
괜찮아. 지금부터 공부하면 되지.
창피해
네!
너희들은 헤이안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게 더 많을게다.

다나카 다쿠, 『헤이조쿄』(이와나미쇼텐, 1984)를 참고로 했습니다.

*헤이안쿄의 택지구획 단위의 하나.


그리고
하나의 정(町)은
40장(丈)
즉 사방
120미터가
된다.
120m
120m
그럼
한 정(町)이
120X120의
정사각형?
한 정(町)은
동서로 4행(行)
남북으로
8문(門)으로
나뉜단다.
1헤누시
1문
2문
3문
4문
5문
6문
7문
8문
4행
3행
2행
1행

아
그래서
한 정(町)은
32분할?
이걸
행문제
(行門制)라고
하지.

그러면
1헤누시는
30mX15m
정도네요.
너 그거
항상
들고
다니냐?
그래
32분의 1을
1헤누시라고
하는거야.

예.
그러니까…
450㎡정도인가?
안에
들어가 보련?
※캣그네 아님.
그래도
맘대로
들어가는 건…
걱정할 거 없다.
진짜도 아닌데 뭘.
사뿐
으음.
마당이
넓네요.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나오미 어른한테는 존댓말을 써야지!
어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거기다가 사랑도 아니고
버릇없이.
아얏
그래. 100%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서 그렇단다.
그게 뭐야? 당시의 사실은 모른다 이 말이야?!
여기는
어디까지나 헤이안쿄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장소다.
그래?
공룡이 살던 시절말야?
너희들은 백아기가 어떤 시대였는지 알고 있니?
상상도
잘 모르겠는데요.

일억년
이상되는
옛날인데도?
그게…
아마도
그건
확실한 거냐?
허나
인간은
과거로는
되돌아갈 수가
없지.
하지만
TV나
책에선…
그건
어디까지나
연구 결과지.
그렇기 때문에
고문서를 해독하고
땅을 파서
지나간 나날들의
단편들을 찾는 거란다.
그럼
그런 건
믿을 만 한 게
못 된단
말씀이세요?
그 단편들을
이리저리 맞춰서
생각한 끝에
간신히
과거의 잔상을
볼 수 있는거야.
그렇지는 않아.

그래도 그것만으론 100% 사실이라고 할 수 없잖니?

그래.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연구하는 즐거움이 있는거야.

내 삶의 기쁨이란다.

기쁨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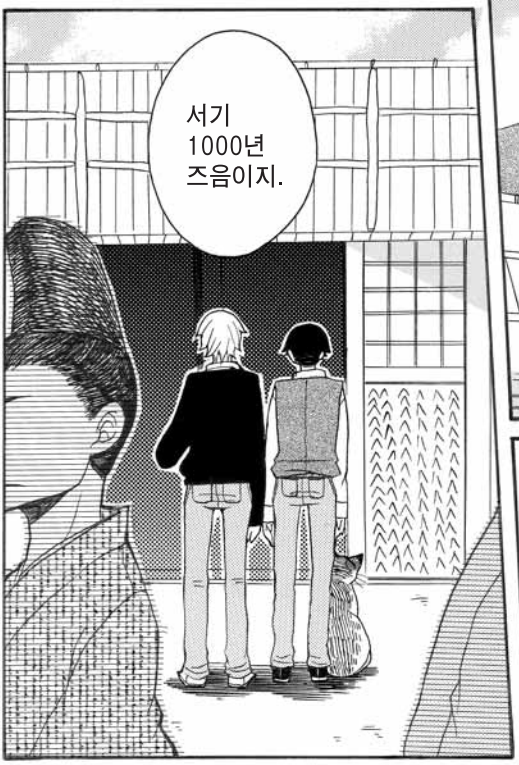
어? 뭐 뭐야?

슬슬 다음으로 나아가자.

시간은 한정된 것이니까

나아가자 라고… ?

헤이안쿄 견학투어.



*에도시대 혹은 그 이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상물.
**한 채의 건물을 여러 집이 살 수 있도록 가늘고 길게 나눈 주택형태.

다카하시 야스오, 「교마치야·천년의 역사」, 학예출판사, 2001

*주로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살던 주택.
**작은 집이라는 뜻.
***바닥처리를 하지 않고 지면을 그대로 둔 건물 내의 공간.

헤이안쿄 견학투어.

※옛길 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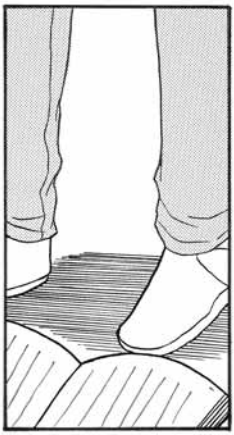
아다치 겐스케, 「중근세 도시의 역사지리」, 지진쇼보, 1984

그래
옛날에는
여기저기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었단다.
지금같은
수도설비가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까아!
!?
맞아 비명소리 맞지?
서기
1000년 경에는
마치야의 성립과 함께
주민으로서의 의식과
즈이킨(隨近)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졌다.
비명소리다!
뭐,
뭐지?!
내 얘기
좀 들어주라
그건
'거주한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는
거야.
가보자!

범인이다.
아!
사람들이 모여있다.
시끌
시끌
스윽
응.
무슨 짓을 해서 잡힌거지?
교수님.
저것이 즈이킨(隨近)이란 거다.
그런 설정이다.
안 만져져
역시 영상이구나.
건물은 만질 수 있었는데.

경찰
같은 건 가요?
아니다.
근처의
주민들이란다.
즈이킨(隨近)은
형사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증언을 하거나
협력해서
범인을 붙잡거나 하지.
엣?
누구말이예요?
범인을 잡은
사람들 말이다.
이 시대는
아직 치안이 좋지 않아서
주민들 스스로가
범인을 체포하거나
마을을 지키고 있었지.
상부상조네요.
굉장한데.
나는 고양이가
아니라고 말했지?
그러고
보니
그렇네.
진짜도
아닌데 뭐
괜찮아.
아!
하하
교수님
개예요.
진짜다!
도망
안 가도 돼요?

헤이안쿄 견학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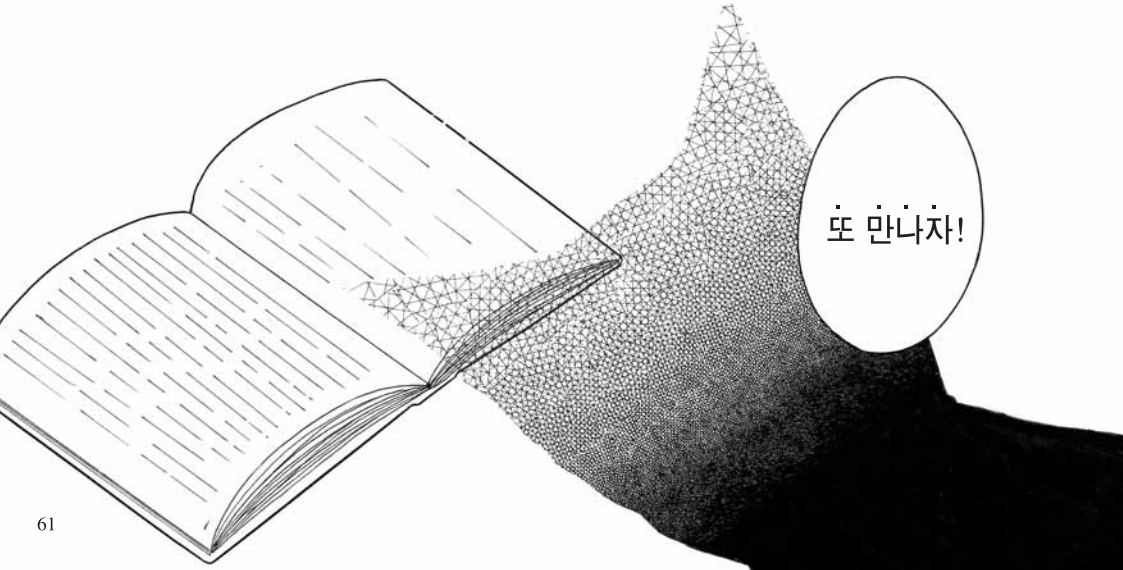
사락

비싼 거든
고양이는 없어요?
이 시대는 아직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의식은 없었지만 개는 많아.
고양이는 수입된 거니까.
고양이가 아니라면서 꽤나 자랑스럽게 말하네.

이제 시간 됐다.

이 책은
그래 연구실에 있었어.

스스슥
또야?!


또 만나자!

…?
나 왔어.
녹차랑 홍차
어느 게 좋아?
방금 뭔가가…
흘끔
뭔가가
벌어졌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마워요
응?
왜 그래?
멍하니.
자 뭐가 좋지?

헤이안쿄 견학투어.

우리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야.
그래요?
응.
아! 그 책.
죄 죄송해요. 맘대로 봐서.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교수님…
금방 오실거니까 여쭤보고 싶은거 여쭤봐.

나오미.
빨리 여쭤보고 싶다.
오우.
기다려 지는데!

다음은!
여러분도 신문과 TV를 통해
잘 알고 계시는
'침팬지 아이짱'!
이 아니라
'교토대학교
영장류연구소'를
소개합니다.
성장한 침팬지는
모르는 사람과
손을 잡지 않아요.
이건 만화니까!
한 번 본 숫자를
인간보다 훨씬
정확하게 많이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은 인간과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이것도 만화!
인간과 인간 이외의
영장류를
연구함으로써
인간을 알고자 하는
발상인데요.
'타케미야
케리터'도
만화!
사실은
학자
연구=
'침팬지가 된다'
라든가?
아니에요.
교수님!
오해하잖아요!